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6년 7월

선교편지 제 91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다바오는 한국의 남한 만큼이나 큰 필리핀 남단의 민다나오라는 섬의 중심 도시입니다. 다바오를 통하여 민다나오의 모든 교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뿐만 아니라 민다나오 지역의 선교도 다바오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속한 선교회의 지역 본부가 다바오에 위치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소속된 선교사들이 다바오뿐만 아니라 민다나오 전역의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파송한 각 선교 단체의 지역 본부들도 같은 이유로 대부분 다바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선교사 자녀들이 공부 하는 국제 학교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각국의 다양한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이야기를 듣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바오라는 도시가 외국인들이 이주하여 생업을 가질만한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외국인 커뮤니티의 규모에 비하여 선교사들의 숫자가 많아 보이는 독특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9년여전 선교에 대한 '기대'와 '사명감'으로 충만한 가운데 이곳에 도착하여 생각지 못한 '혼돈'으로 잠시 고민을 한적이 있습니다. 울창한 숲을 멀리서 바라 보는 것과, 숲 안에서 나무와 풀과 벌레들을 자세히 보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교지 밖이 아닌 선교지 안에서 선교사들과의 함께하는 삶은 또 다른 세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의 현지 주민이나 생소한 문화에 대한 충격 보다는, 현지 선교사들의 다양한 모습으로 인하여 막연히 그려왔던 선교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인데,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온 선교사들을 통하여 보고, 느끼는 실망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매월 공급 받는 선교비로 사역은 물론 생활을 해야하는 선교사들 간에도 큰 빈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때때다가까운 선교사들을 불러서 식당에서 크게 한턱을 낼 수 있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차비가 없어서 뜨거운 땀병에 걸어 다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타국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로 여유가 있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자녀들이 어렵게 벌은 돈을 선교비로 조달받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다바오에 머물며 명예와 자리에 연연하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아슬아슬하게 위험한 지역을 파고 들며 이름없이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선교지가 이곳인지 본국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왕래가 잦은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험한 오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먹고, 생활하는 가운데 얼굴을 보기 힘든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선교지의 어두운 첫인상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들려오는 내용도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값진 진주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선교의 열매가 크게 주목 받지 못하고, 칭찬보다는 고난이 더 많아 보이는 험난한 사역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묵묵히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가까이에서 보면, 마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감격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만 맛볼수 있는 큰 축복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쓰신 글 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많은 결산이 있겠지만, 과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얼마나 삶을 바쳤는가, 또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받지 못할 사람에게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내 삶을 바쳤는가에 대한 정산이 있을 것이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 2:10 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익핏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시작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예정된 시간 맞추어 익핏 마을에 들어 서면, 흠어져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달음박질하여 교정으로 모이고, 마치 합창이라도 하듯이 큰 소리로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며 반겨줍니다. 지금까지 주로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성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다가, 어린이들과 함께 하니 또 다른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의 현지 사역자들이 주일 학교와 다름없이 다양한 사역을 잘 준비하여 어린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율동도 가르쳐 주고, 호기심으로 가득찬 아이들에게 실감나는 성경 이야기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하고, 웃음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게임을 하고, 상품도 나누어 주고, 간식을 같이 먹으면, 아쉽게도 예정된 시간이 훌쩍 지나고 맙니다. 2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안에서 생동감 넘치는 아이들과 함께 하노라면 그동안 잘 사용하지 않았던 얼굴 근육이 아플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익핏 초등학교'에는 현재 약 400여명의 어린 학생들이 재학 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 30분에 등교하여, 제일 먼저 전교생이 학교와 주변을 구역별로 나누어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 합니다. 스피커에서는 마치 새마을 운동 노래와 같은 음악이 흘러 나오고, 담임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쓰레기를 줍는 것이 그들의 첫 일과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조회를 마치고나서 학년별로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아주 평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전 9시가 되면, 예상하지 못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다른 학교와 달리 '아침 식사' 시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점심 도시락을 먹듯이 각자 준비해온 아침 식사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400여명의 전교생 중에서 100여명의 학생들은 다른 아이들처럼 교실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 밖에 학년별로 줄을 서서 학부모들이 준비한 '루가우'를 배급 받아 먹고 있습니다. '루가우'는 우리가 먹는 '죽'과 거의 동일한 현지 음식입니다. 많은 물에 쌀, 야채, 닭 또는 돼지 고기와 함께 맛을 내는 조미료를 듬뿍 넣고 걸죽하게 끓여서 죽처럼 먹습니다. 익핏 초등학교에서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고 오는 100여명의 아이들을 선별해서 매일 아침 무상으로 '루가우'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 프로그램은 익핏 초등학교에서 거의 20여년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들 중의 한 분도 어릴적 익핏 초등학교에서 이 급식을 먹고 공부 했다고 말할 정도로 꾸준히 지속되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익핏 초등학교가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이러한 급식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배경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너무나 오래 전에 시작한 급식 프로그램이고, 그동안 선생님들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한 배경을 알고 있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20여년전에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한 침례교회 선교팀이 이곳 익핏 지역을 방문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선교팀이 돌아간 이후에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익핏 초등학교의 어린 학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매일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매월 \$500을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구제비 지원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닌, 자그만치 20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구제비를 보내는 교회의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지도 않고, 별도로 감사 표현을 하는 것도 없이 그저 20여년동안 받기만 해왔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전학생들이 아침을 먹을 수 있었는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 학생수도 늘어 나고, 물가도 높아져서 현재는 매일 100명만이 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 10:42)

새학기가 시작되는 2016년 6월, 익핏 고등학교와 익핏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학부모 대표, 그리고 마을 지도자들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진행 했었던 선교 사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향후 사역을 위한 협조를 얻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토요일에 사역을 하다보니, 때때로 교문이 잠겨 있어서 학교 담을 넘어 들어가야 하는 난처한 경우도 있었고, 의자와 교실이 미리 준비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학교장과 마을 대표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저희들의 사역을 환영하며, 앞으로 진행할 익핏 학원 사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전혀 기대치 못한 가운데 익핏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공립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전교생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규 채플 시간'을 가져도 좋다는 허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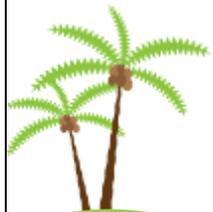
이 모든 일들이 저의 수고로 인하여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익핏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미처 생각지도 못한 20여년 이전부터 준비하시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미국 텍사스 침례 교회의 구제의 손길을 통하여 20여년 동안 익핏 마을의 마음 밭을 갈아놓아 주시고, 이제 때가 되어 서서히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익핏 지역에 단기 선교팀을 동원하여 의료 선교와 학원 선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좀 더 구체적인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장엄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 동역자들을 함께 사용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높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두는 자가 이미 샀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요 4: 36~38)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익핏 지역 사역을 위하여
3.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4. 하반기 세례자들을 위하여
5. 성령 충만, 안전, 건강과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